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성품이 법이면 마음은 부처

마음씨 타령 ④

여러분들, 낙동강도 보고 한강도 보고 천리강산의 물을 보겠지만 이 물이란 건 끊임이 없어. 언제라도 그대로 흘러가. 인위적으로 강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건 유위법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해놔도 물 흐르는 것은 매 한가지야. 이래 돌려놔도 결국 물은 흘러. 저리 돌려 놔도 결국 물은 흘러. 한결같아.

그러니 결국 마조대사도 역시 급하다 이 생각 다시 물을 줄 알았겠죠. 또 그 자리에서 알았으면 아 그렇구나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자리가 바로 열반이로구나 바로 이렇게 아는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물을 줄도 알았겠지요. 만약 묻지 않았더라면 나갈 거여. 절하고 갔을 거여. 가면서 물을 봐라.

그 말 한 마디 했을 줄도 모를 거여. 별 문제겠지만. 그러하니 열반자리가 무엇이냐면 열반자리가 역시 이것이거든요. 나는 이걸 쇠꽃이다. 이래 노래해 놨는데 역시 열반자리가 이 자리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급한 것이거든요. 급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가져. 쇠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 심자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봐라.

물이란 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저렇게 틀어놓고 했더라도 한결 같아. 변한 것이 없어. 이 자리. 이건 불변심을 말해. 이건 악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닌 이 자리, 이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 내가 생각하기는. 그러하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반이라고도 하고 열반묘심이라고도 하는데 묘한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 아닌가 말이지. 그 자리가 바로 마음씨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리고 대중을 깨우치는데 무엇인가 색다른 말 한 마디 해야 탁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노래 부른 것이 쇠꽃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참말로 어찌 이 마음자리를 쇠꽃에 비유하겠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무슨 말이라도 빌려다가 한마디 턱 하게 대중에게 들려주어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품이 법이라면 마음은 부처란 것은 틀림없고, 이전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처님도 그래 말씀 했고 우리가 생각한 것도 그래. 절대로 머리털만큼도 이전 어른들의 말씀과 내 그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내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쇠꽃이다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란 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쇠꽃이라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지화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좋아. 참 지화자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이 노래를 만드는데, 서울대학원생인데 대전에 있을 때 구경을 나갔는데 노래를 해. 그런데 그 노래에 관심이 가. 아하,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마음씨 어떤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쇠꽃이로구나, 어즈버야 지화자자 좋을씨고 쇠꽃이로구나. 이러면서 춤이라도 한 번 춰. 마음자리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춤추는 것도 마음이 추지 무정물 어디 이것이 추나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한결 같은 물은**
> **어디에서도 변함없다.**
> **이 자리는 불변심을 말한다.**
> **악한 것도 착한 것도 아닌**
> **'열반묘심' 이라고도 하는**
> **이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

[강송] 영특스런 슬기라서 의젓한지라.

영특스런 슬기, 여러분이 다 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젓한 자리거든요. 다 의젓한지라.

[강송] 기틀마다 응하면서 씀을굴리니.

기틀마다 응해. 그래서 씀을 굴려. 작용을 해. 어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기틀마다 응하면서 씀을 굴리니, 작용을 하니. 작용이라 써도 좋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쓰려고 씀을 굴리니 했어요.

[강송] 어즈버야 다함없는 장엄세계다.

마음, 이 장엄세계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하니 이 극락세계 여러분이 만들고 이 지옥도 여러분이 만들고 사바세계도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로서인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 만듭니다. 이거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강송] 어즈버야 다함없는 장엄세계라.
지화자 좋을씨고 돌말이뛴다.

돌말이 뛰어. 아까는 쇠꽃이라 했는데 돌말, 석마, 세상에 돌말이 뛰는 법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깃덩어린데 왜 걸어다니나? 아, 그건 내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돌말이 뛴다.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냐.

어느 것 하나 이름자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산도 이름자, 지구도 이름자, 나무도 이름자, 돌말도 이름자. 이름자는 내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재주를 부려서 이걸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무슨 모습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딱 들어앉아 버리면 한계성이 딱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 태양을 한 바퀴 돌아. 실은 이거 지구 자체가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씨가 도는 겁니다. 알고 보면. 너무 엉뚱한 말이 되서 이건 곧이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씨는 그만 허공 전부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구나 태양이 어딨나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씨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자 한 가닥의 마음을 나투어서 거기서 모습을 나투어. 그 모습과 모습끼리 타협을 해. 거기 정해진 자리를 도는 건데 돌도록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돌말, 나무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름자에요. 사람이것도 이름자에요. 그러면 이름자는 내 마음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몸의 법당 알뜰히 청소하자

17-1. 회향게(回向偈)

처음에도 말했듯이 행원례(行願禮)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수행(修行)의 스케줄을 짜 본 것이다. 이 수행생활의 일과를 짜는데 있어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었느냐 하면 우리는 다들 집을 지니고 살고 있으며,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당을 중심으로 도량에서 생활하는데, 집이라거나 법당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자기의 몸이며, 다시 말하여 자기의 몸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깝고 큰 법당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바로 자기 몸에 담겨 있는 부처가 가장 알찬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몸의 법당이거나 그 법당 안의 부처이거나, 우리 다솔사(多率寺) 수덕전(手德殿)에 모셔 놓은 부처님이거나, 또 제가끔의 우리들 가정 생활하는 집이거나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신성하고 경건한 터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신성한대로 지켜 나가려면 날마다 깨끗이 소제를 해야 한다.

거미줄을 걷어 내고 마당엔 잡초 하나 없이 뽑아 버리고, 먼지를 털고, 닦고 하여 환하게 만들고 또 집안에 물건 하나라도 놓을 곳에 놓이고, 걸릴 곳에 걸리고, 또한 자기의 몸에 지닐 것은 제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 옷고름이 풀렸거나, 차림새가 단정치 못하고, 또는 여자의 치마끈이 느슨히 풀어졌거나 한다면 이런 것은 그 집, 속이 소홀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집을, 몸의 법당을 알뜰히 청소하고 물을 뿌린 다음에는 우리는 이것이 더 맑게 보이기 위해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우고 꽃을 꺾어다가 장식하고 그러면 이 도량이 맑고 거룩해져 우리의 몸의 법당도 한층 더 신성하게 된다. 사람이 사는 데는 내왕이 있게 마련이며, 이제는 어떠한 거룩한 어른이라도 맞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셔 올 수 있고 우리들의 선망부모(先亡父母), 조상들은 늘 우리의 몸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을 역시 모셔야 한다. 우리의 집으로 어떤 성인이 오건 찾아온 때에는 그분들께 성의껏 대접하고 이분들과 사람 살아나가는 일을 수희(隨喜)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를테면 행원례라는 것인데 우리는 큰 비원을 세워 행동을 통해 이를 나날이 이룩해 나간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마는 우리는 차라리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쉬운 일을 먼저 택해서 한다. 일이 어려워서는 되지 않고 곤란한 것은 되도록 이를 피하고, 평탄한 길에서 아주 쉬운 얘기를 가장 거룩하게 실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염불생활을 한다. 염불이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가.

그리고 수행(修行)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삼가고 몸을 닦아야 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계행(戒行)이라고 한다. 계행은 보통 오계(五戒)나 십계(十戒)로 일컫는다. 이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제가끔 부여된 계통에 따라 조목이 세워진다.

> **향을 피우고 꽃을 꺾어 장식하면**
> **도량이 맑고 거룩해져**
> **우리 몸의 법당도 한층 더**
> **신성하게 된다.**
> **여기에는 어떤 거룩한 어른이라도**
>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
> **부처님도 모셔 올 수 있고**
> **선망부모(先亡父母), 조상들은**
> **늘 우리의 몸에 그림자처럼**
> **따라다니므로**
> **우리는 이들 역시도 모셔야 한다.**
> **집으로 어떤 성인이 오건**
> **그분들께 성의껏 대접하고**
> **사람 살아나가는 일을**
> **수희(隨喜)해야 되는 것이다.**

몸으로 범하는 것은 첫째 살생(殺生)하는 것, 또 손이나 발로 도둑질 하는 것, 그리고 또 음탕한 짓을 일삼는 것 등이 있다. 입으로는 거짓부렁하고, 비단 말 하고, 두 혀를 놀리고, 험상궂은 악구(惡口)하고 그러는 것이 대개 네 가지 계율에 든다.

또한 뜻으로는 탐욕을 부리거나 버럭 성을 내거나 얼빠진 생각을 내어 남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만심을 가지거나, 이렇듯 탐진치(貪瞋癡)에 빠진다. 뜻으로 셋, 입으로 넷, 몸으로 셋을 합쳐서 열 가지의 계율, 즉 십계라고 한다. 다시 말하여 살(殺), 도(盜), 음(姪, 망(妄), 주(酒), 기어(綺語), 망어(妄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탐(貪), 진(瞋), 치(癡), 등이다.

그밖에 범망경(梵網經) 같은 데서는 마흔 여덟 가지의 계율 즉 사십팔계(四十八戒)를 설정한 것이 있다. 요즘 비구(比丘)의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와 또 오백계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삼십 팔계인데 그런 것도 있다. 이렇듯 계율(戒律)의 조문이 많은 수에 이르러 엄격하게 계(戒)와 율(律)을 분간하게 되어 있다. 계는 선악(善惡)의 윤리성에서 추출되는 우리의 행동의 규제이며, 율은 비나야(Vinaya)라는 것으로 원래 인도에서 그 사회의 풍속, 관습 등에 맞도록 단체적 행동에 규칙을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는 기후가 더우므로 습기를 피해 가사(袈裟), 보자기 같은 것을 둘러써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겨울에 추운 지방에서는 이런 보자기나 가사만으로는 못 견디는 것이다.

핫옷에는 그 위에 핫두루마기를 업어야 되고 시베리아나 만주 등지는 이를 것도 없고, 함경북도만 해도 모피(毛皮)등속을 옷에 대고 배자도 해 입고 그런다. 최근 태국의 유명한 승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지만, 맨발에다 옷은 가사 하나만으로 다른 것 입지도 않아 계율 지키느라고 벌벌 떨다가 돌아갔는데 이러다가는 병이 나기 쉬운 것이다. 그 분들은 그런 것을 계율이라고 아는 모양이나 우리가 만일 이것을 지키려다가는 큰 사고에 봉착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 풍토에 맞는 규칙을 정해 놓은 비나야, 즉 육과 인간 본래의 윤리성을 설명한 규제인 계와는 우리가 완전히 분리하여 각기 별도로 연구할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마음씨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